



제목	이란의 사적 영역의 의미와 상징의 유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34-1)
발행일	2013. 6. 30.
저자	구기연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21-248
ISBN 또는 ISSN	1225-8865

내용 요약

이란 이슬람 혁명은 ‘문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혁명 이후 이란 사회는 이전과는 상이한 이념들과 기표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은 이를 실천해야만 했다. 공공영역에서 이란의 국민들은 철저히 ‘정숙한 무슬림 시민’으로 살아야만 한다. 모든 9살 이상의 여성들은 이슬람식 복장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하고, 공공영역에서 남녀분리현상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젊은이들의 복장뿐 아니라, 이성교제나 사적 모임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역시 이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통제되고 처벌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진다. 국가가 강조하는 이슬람적 가치는 순수한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파간다와 사회 규범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문화의 연결망 속에서 정치적인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이데올로기를 ‘냉소주의’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체계를 또다시 종교적인 언어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높은 도덕적 이상과 감정 통제는 비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 속에서 시민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란은 다른 어떤 세계보다 도덕적 규범이 작용되는 공공 영역이 넓게 퍼져 있으므로, 진실한 자아는 비밀스럽고 사적인 공간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